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제34회 사랑의 축제'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지역의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제34회 사랑의 축제' 가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세요' 란 주제로 1일(토)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 1721 N Broadway, LA, CA 90031)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나성영락교회 소망부와 한국어대학부 연합팀의 찬양, 발달장애우들로 이루어진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의 축하 연주, '험블 비즈' 의 힙합 공연, '갓스 이미지' 의 찬양 댄스 공연 등이 선보였으며,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21개 교회와 선교단체 소속 장애우, 가족, 봉사자 700여 명이 참가해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이날 박은성 목사는 '사랑으로 보여 지는 믿음' (요한일서 4:7-11)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의 믿음은 행동으로 직접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실 된 믿음이 아니다." 고 말했다.

성탄찬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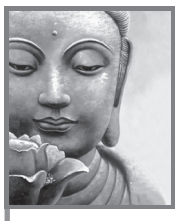
LA동부교역자협의회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이승준 목사)가 2일 월넛 소재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목사 송재호,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에서 '2018성탄찬양제' 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주님의교회 성가대 등 LA동부지역 9개 교회의 찬양대가 참가했다.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티니교회 담임)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10-14)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제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성탄찬양제는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교회 연합과 친목을 위해 매년 연말에 열고 있다.



자신 닦는 공부를 합시다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自然衣帶緩
/자연히 옷의 혁대가 느슨해지니
非是爲腰身
/허리와 몸을 위해 옳지 않다.

왕소군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로써 자신이 조국과 떨어진 곳에서 봄을 맞으니 꽃이 꽃처럼 보이지 않고 봄의 분위기에 도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흉노족에게 시집을 간 다음부터 봄이 왔지만 결코 즐거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유래 되었습니다. 봄은 온 것 같은데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생명의 질서는 춥든 덥든 간에 그 질서대로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고 하는 것이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봄이 올 듯해서 봄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봄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봄은 찾지도 못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매화가 벙긋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와 있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는 수고로움만 더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이것은 곧 봄이든 행복이든 멀리서 찾지 말고 자신의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 語動靜)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며칠 날씨가 추었지만 이미 산과 계곡 들판을 보니 나무들이 봄바람을 맞고 봄비를 머금어 어느새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말고 가치로운 삶 이끌 지혜 '터득'

사람은 평생을 사는 동안 몇 차례의 길흉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기운을 당면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성공의 탑을 쌓습니다. 이런 성공의 탑을 쌓는데 있어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위를 안 하고 짐승같은 짓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단히 어지럽고 삭막하게 변해갑니다.

바야흐로 봄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옷섶을 파고드는 바람이 아직은 차갑다 해도 파릇한 풀내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도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음을 봅니다.

생명의 계절이며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봄, 이 시기를 우리 인생에 비교하면 자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청정한 수행정진의 준비를 꼼꼼히 할 시기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공부하는 불자라면 세속의 지식은 물론이요, 삶을 보다 가치로운 것으로 이끌어갈 참 지혜들을 한껏 배우고 익힐 때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했습니다. 또 시위를 떠나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른다지만 그것은 오늘을 환히 밝혀 주는 태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제행무상의 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불공하고 부처님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 한번뿐인 시간을, 기회를, 인생을 낭비하는 자세일 뿐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신심나고 간절할 때 부처님 전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와 공부에 전념한다면 그 공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올봄에는 학문을 익히는 공부,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를 그 어느 해보다 충실히,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해봅시다.

-선묵스님-